

육아지원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 방안¹⁾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영유아를 둔 가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편적인 이용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구에서 자녀 돌봄의 공백을 경험하는 비율은 59.2%에 달하고, 부모의 야간근로, 자녀가 아픈 경우, 부모가 아픈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인한 휴원 시에 자녀 돌봄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긴급돌봄 수요는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내실화를 통해서도 온전히 대응하기 힘들어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서론: 육아지원기관과 아이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자녀돌봄 공백의 해소

영유아 대상의 육아지원이 만 3~5세 누리과정의 도입과 0~5세아 보편적 교육·보육료 지원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위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돌봄서비스 다양화의 일환으로 그 사업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사업 예산이 늘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는 2022년 5월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46번)²⁾에서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로 제시되어 향후 정책적 역량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비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확대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제도 도입 이후로 줄곧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과 일시적인 양육 공백의 해소를 목표로 삼았으며, 2010년 이후로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가정내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목표를 추가하였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측면에서 육아지원기관 즉,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다. 이를테면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포함되어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고, 시간제서비스의 경우는 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

1) 이 글은 2021년에 수행된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함.
2)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간(09~16시)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운영시간(09~13시)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³⁾

이상의 논의에 따라 이 글에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앞서 해당 수요가 무엇 인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가

구 1,121 사례와 유치원 이용가구 502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때 영유아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16:00~19:30)이 실시되고, 유치원에서는 방과후돌봄이 제공된다는 점을 상기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돌봄 수요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해 아이돌봄서비스 연

〈표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유경험 비율

단위: %(명)

구분	자녀돌봄 공백 경험 여부		계(수)
	있음	없음	
전체	59.2	40.8	100.0 (1,623)
자녀연령1			
0세	64.7	35.3	100.0 (17)
1세	64.5	35.5	100.0 (152)
2세	61.6	38.4	100.0 (456)
3세	63.1	36.9	100.0 (233)
4세	61.2	38.8	100.0 (255)
5세 이상	52.5	47.5	100.0 (510)
$\chi^2(df)$	14.28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65.7	34.3	100.0 (1,092)
홀벌이 가구	45.9	54.1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46.2	53.8	100.0 (26)
$\chi^2(df)$	57.459(2)***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71.2	28.8	100.0 (514)
연장보육 미이용	50.1	49.9	100.0 (607)
방과후과정 이용	64.6	35.4	100.0 (302)
방과후과정 미이용	48.0	52.0	100.0 (200)
$\chi^2(df)$	65.565(3)***		
주말근로 여부			
주말근로 안함	49.1	50.9	100.0 (485)
비정기적 주말근로	61.8	38.2	100.0 (623)
정기적 주말근로	67.1	32.9	100.0 (346)
매주 주말근로	65.7	34.3	100.0 (143)
$\chi^2(df)$	33.722(3)***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67~170. 재구성
*p <.05, ***p <.001

3) 여성가족부(2022). 2022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 29.

계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 자녀 돌봄의 공백을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경우와 면밀하게 구분하였다.

2.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자녀 돌봄의 공백을 경험하는 비율과 자녀 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및 정도 등을 파악하였다.

가. 가구특성별 자녀 돌봄의 공백 여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자녀 돌봄의 공백을 경험한 비율은 5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비율은 영아를 둔 가구 특히

0세와 1세아에서 각각 64.7%와 64.5%로 이의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또한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돌봄의 공백을 경험한 비율은 65.7%로 높은 가운데, 특히 주말근로 빈도가 높은 가구에서 돌봄의 공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자녀 돌봄의 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71.2%와 64.6%로 높게 나타나서 이들 서비스가 돌봄 수요를 온전히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나. 자녀 돌봄 공백의 유형 및 우려 정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자녀 돌봄의 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으로는 '자녀가 아플 때' 46.9%,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한 경우' 41.7%, '직장에서 연장근로 해야 할 때' 39.2%, '부모가 아프거나 병원진료를 받아야 할

〈표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상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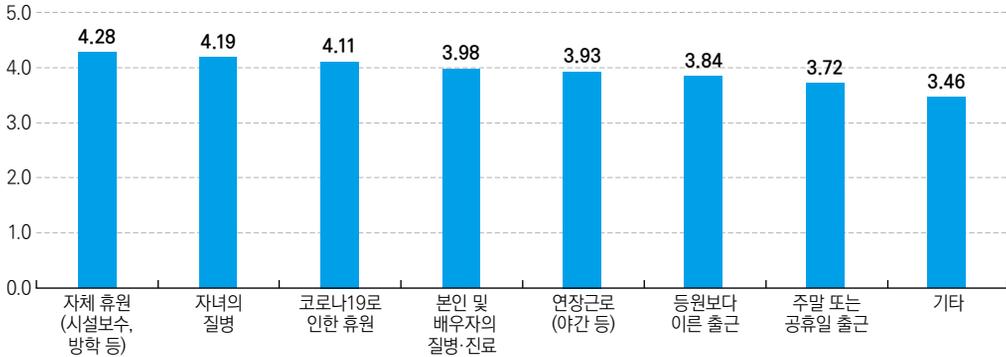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아플 때	직장에서 연장근로를 해야 할 때	기관이 문열기 이전에 출근해야 할 때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기관이 휴원할 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진료가 있을 때	이용 기관의 자체 휴원	기타	(수)
전체	46.9	39.2	24.2	24.0	41.7	36.0	5.1	0.8	(1,623)
자녀수									
1명	43.1	41.4	25.0	25.9	36.9	34.4	4.6	0.6	(636)
2명	47.9	38.1	23.0	23.4	45.2	37.2	5.8	0.7	(839)
3명 이상	57.4	36.5	27.7	19.6	42.6	36.5	2.7	2.0	(148)
$\chi^2(df)$									35.229(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0.5	47.8	28.6	26.3	43.2	27.7	5.5	0.7	(1,092)
홀벌이 가구	40.2	22.4	15.6	19.8	40.0	52.9	4.4	0.8	(505)
모두 근로 안함	26.9	7.7	7.7	11.5	11.5	61.5	0.0	3.8	(26)
$\chi^2(df)$									288.565(16)***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73-174. 재구성함.
p <.01, *p <.001

[그림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의 우려 정도(5점 척도)

단위: 점



주: 1) 5점 평균은 '우려 정도 낮음' 1점~ '우려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기타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자녀 육아로 바쁠 때', '배우자의 휴가', '아이의 하원이 빠른 경우' 등임.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05.

때' 36.0%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기관이 문을 열기 전에 출근해야 할 때'(24.2%)와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24.0%) 등이 지목된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는 자녀가 아픈 경우와 직장의 연장근로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자녀가 아픈 경우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높아져 이들 가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용기관의 휴원이나 자녀가 아픈 경우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이용기관의 시설보수' 등 자체휴원' 평균 4.28점, 자녀가 아플 때' 4.19점,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할 때' 4.11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병원 진료' 3.98점, '직장에서 연장근로(야근 등)' 3.93점, '기관이 문 열기 전에 출근해야 할 때' 3.84점 순이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과 지원요구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과 지원방식에 관한 요구를 규명하였으며, 자녀 돌봄 공백에의 대응 방식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이에 앞서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실태 및 사유를 살펴보았다.

가.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현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이용 서비스로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72.9%로 주를 이루며, 그 다음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21.3%, '아이돌보미' 16.5%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이돌보미 이용가구의 비율은 유아에 비해 영아,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는 조부모와 친인척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친인척 등과 민간 육아도우미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표 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조부모/친인척	민간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이웃	기타	(수)
전체	72.9	21.3	16.5	3.0	1.0	(668)
자녀연령2						
영아	68.7	25.3	23.2	2.1	0.4	(233)
유아	75.2	19.1	12.9	3.4	1.4	(435)
$\chi^2(df)$	20.694(5)*					
자녀수						
1명	83.1	12.9	10.5	2.0	0.8	(248)
2명	67.8	26.8	18.6	3.8	1.1	(366)
3명 이상	61.1	22.2	29.6	1.9	1.9	(54)
$\chi^2(df)$	55.551(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74.1	22.0	16.0	2.8	0.7	(576)
홀벌이 가구	65.9	17.0	20.5	4.5	1.1	(88)
모두 근로 안함	50.0	0.0	0.0	0.0	50.0	(4)
$\chi^2(df)$	101.903(10)***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80.
*p <.05, ***p <.001

비율이 아이돌보미 보다 더 높게 나타나므로 자녀 돌봄의 공백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해소하려는 의향이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2022년 3월 이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 중에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748가구(57.2%)를 대상으로 병행 이용 사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늦은 하원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때 ‘이른 하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 ‘아동이나 부모의 장시간보육에 대한 기피’로 인한 이른 하원과 ‘기관에 눈치가 보여서’ 필요한 시간보다 일찍 자녀를 하원시키는 경우는 그 배경으로 보아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장시간 동안 아동을 맡기는 것이 기관에 눈치가 보인다가나 오후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동이 없어서 자녀가 안쓰러워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가구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의 강제 휴원’ 평균 3.93점, 부모가 아픈 경우 3.87점,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경우 3.85점, 일상적으로 늦은 퇴근(19:30 이후) 3.84점, 추가자녀를 출산한 경우 3.80점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표 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병행이용 사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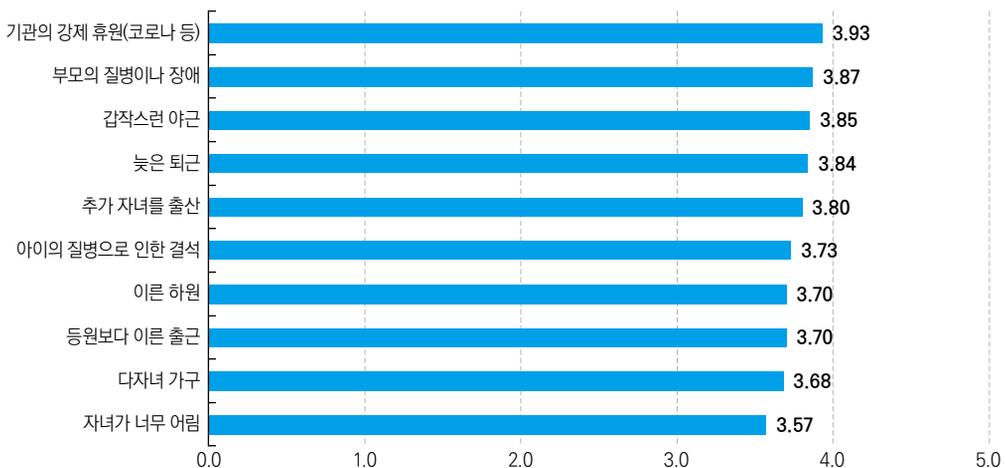
구분	등원 서비스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하원 이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오후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동이 적어 아이가 안쓰러워서	장시간 아동을 맡기기에 기관에 눈치가 보여서	아이가 장시간 기관 이용을 원치 않아서	장시간 기관이용이 발달에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어서	기타	계(수)
전체	10.3	27.7	32.0	19.4	6.6	3.3	0.8	100.0 (748)
이용기관 유형								
어린이집	9.7	28.4	32.1	20.6	5.0	4.0	0.2	100.0 (524)
유치원	11.6	25.9	31.7	16.5	10.3	1.8	2.2	100.0 (224)
$\chi^2(df)$	19.478(6)**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9.4	28.1	34.7	22.2	3.8	1.4	0.3	100.0 (288)
연장보육 미이용	10.2	28.8	28.8	18.6	6.4	7.2	0.0	100.0 (236)
방과후과정 이용	11.3	23.3	34.7	19.3	8.7	0.7	2.0	100.0 (150)
방과후과정 미이용	12.2	31.1	25.7	10.8	13.5	4.1	2.7	100.0 (74)
$\chi^2(df)$	44.445(18)***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12.

p <.001, *p <.001

〈그림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5점 척도)

단위: 점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3.

집 중 조 명

특히 자녀가 아픈 경우와 집단감염 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이들 경우에 선호하는 돌봄 방식을 살펴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진단하였다. 자녀가 아파서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희망하는 돌봄 방식으로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60.0%(1+2순위 73.4%)로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내 부설 보육시설 47.8%, 환아 전문 거점보육시설 42.4%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는 35.9%로 조사되었다.

자녀가 아픈 경우에 시설보다 아이돌봄비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아픈 자녀가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점과 '낮선 기관에서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 거 같아서'가 각각 36.7%와 31.6%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는 아픈 자녀를 등원시키는 것이 힘들어서(19.0%), 타인의 접촉에 따른 추가감염이 우려되어서(11.4%) 등이 지목되었다.

이처럼 대표적인 돌봄 공백이라고 우려되는 자녀가 아픈 경우의 돌봄에 대해서는 부모를 제외하면, 의료서비스를 갖춘 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지만, 아이돌봄비를 선호하는 가구

〈표 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돌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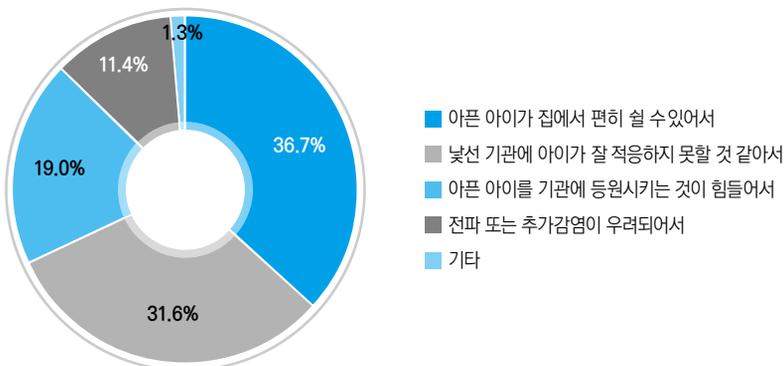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제공함	60.0	73.4
의료기관 내 부설 보육시설에서 돌봄	17.9	47.8
환아 전문 거점보육시설에서 돌봄	14.2	42.4
아이돌봄미(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돌봄	7.9	35.9
기타	-	0.5
계(수)	100.0(1,623)	(1,623)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19.

〈그림 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아이돌봄비를 선호하는 이유

단위: %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22.

에도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휴원하였을 때 경우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이 희망하는 방식이 아닌 가구(591사례)에게 희망하는 돌봄 방식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

과, 아이돌보미가 30.1%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긴급보육은 24.7%로 부모의 직접돌봄(22.2%)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표 6〉 (집단감염 시 주양육자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집단감염 시 선호하는 돌봄방식

단위: %(명)

구분	부모 직접돌봄	조부모 (또는 친인척)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어린이집 /유치원 긴급보육	기타	계(수)
전체	22.2	15.1	30.1	7.4	24.7	0.5	100.0 (59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25.1	13.3	30.1	8.9	22.7	0.0	100.0 (415)
홀벌이 가구	16.4	20.0	29.7	4.2	28.5	1.2	100.0 (165)
모두 근로 안함	0.0	9.1	36.4	0.0	45.5	9.1	100.0 (11)
$\chi^2(df)$	38.062(10)***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26.

〈표 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야간/주말보육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단위: %(명)

구분	야간 또는 주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계(수)
	예	아니오	
전체	71.8	28.2	100.0 (1,6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75.3	24.7	100.0 (1,092)
홀벌이 가구	65.1	34.9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57.7	42.3	100.0 (26)
$\chi^2(df)$	20.119(2)***		
주말근로 여부			
모두 주말근로 안함	63.1	36.9	100.0 (485)
비정기적 주말근로	76.9	23.1	100.0 (623)
정기적 주말근로	74.6	25.4	100.0 (346)
매주 주말근로	75.5	24.5	100.0 (143)
$\chi^2(df)$	28.517(3)***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29-230.

***p <.001

다. 서비스 연계의 방식 및 적용방식 동의 정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이나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신청 및 방법에 관한 정보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이용 중인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들에게 공지가 39.4%(1+2순위 응답률 53.6%)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동주민센터에 안내책자를 비치하거나 아이사랑포털 등 육아 관련 포털 사이트에 소개자료 탑재가 공히 32.2%,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서비스 기관에 안내책자 비치 31.1%, 소아과 등 의료기관에 안내책자 비치 30.8%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적용사항에 대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동의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등하원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지원한다’와 ‘종일제보육이 필요한 가구에게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지원을 강화한다’에 대한 동의하는 비율(동의함+매우 동의함)이 각각 69.2%(평균 3.86점, 5점 만점)와

70.1%(3.84점)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일제 보육에 대한 수요는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등하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른 등원과 늦은 하원으로 일상적인 자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를 지원해야 함을 말해준다. 또한 야간 및 새벽과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시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들 수요에도 부응해야 할 것이다.

4.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는 자녀돌봄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에 교육·보육비가 지원되고,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 유치원에서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고유한 수요를 토

〈표 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선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보수집 방식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들에게 공지해 줌(오리엔테이션, 부모 간담회 등)	39.4	53.6
의료기관(소아과 등)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12.3	30.8
주민센터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16.9	32.2
산후조리원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8.9	19.2
육아 관련 서비스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10.1	31.1
육아 관련 포털(아이사랑포털 등) 사이트에 소개 자료를 탑재함	12.1	32.2
기타	0.2	1.0
계(수)	100.0(1,623)	(1,623)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46.



주: 5점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41.

대로 그 목표 및 기대효과를 명료화하고, 부처 간 협력 등 세부 방안이 요구된다.

가. 목표와 기대효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수요 및 대응

육아지원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목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운영되지 않거나 또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의 대응'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가구에게 욕구 수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 기관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자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수요는 '일상적으로 야기되는 돌봄의 틈새'와 '긴급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와 중첩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운영되지 않는 이른 새벽이나 늦은 오후 시간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감염성 질환 등 자녀가 아픈 경우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긴급보육이 필

요할 시에는 일시연계 방식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나. 세부 방안

1) 서비스 연계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가) 관계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영유아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구여건 및 상황에 맞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관한 규정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관할 필요가 있다. 즉,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도 및 시·군·구,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사항이 일관되게 하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의 보완이나,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매 상황 마다 즉각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담당 부서로 협조 공문을 전달하여 자치구 단위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나) 어린이집/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내 서비스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가 요구된다. 즉,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아이돌봄서비스 담당 공무원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 기관에 정기적인 협조 공문의 발송과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 네트워크를 통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교육 및 설명회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부모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서비스 연계 관련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을 보완한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주요 업무로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원스톱 돌봄서비스 신청 및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의 구축

가) 이용자 신청 방식의 편의성 제고:
원스톱 신청시스템의 구축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은 지원유형별로 상이한 데, 정부지원을 받는 '가~다'형은 정부지원 결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라'형은 정부지원이 없으므로

곧바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아이돌봄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별도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절차로 인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인 가구는 해당 시스템의 회원 가입과 정회원 신청 절차를 거쳐 비로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가구는 복지로 또는 e-유치원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이돌봄 시스템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2020년부터 정부대표 포털인「정부24」에서는 돌봄시설의 검색과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한 '온종일돌봄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데⁴⁾, 해당 사이트에서는 아동돌봄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이용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영유아 돌봄'검색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의 돌봄서비스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하여 '아이돌봄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 아동의 이용정보 연계 및 통합적 출결관리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업무관리시스템은 각기 달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아동의 이용정보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업무관리 시스템의 연계가 요구된다. 더욱이 2022년부터는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 가구의 아동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시스템의 연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의 이용자 정보는 보육통합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유아학비는 e-유치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관리되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4) 관계부처합동(2019. 11. 11), 보도자료: 우리아이 방과후 돌봄시설 신청,「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 p. 1.

음)과 별도로 구축되었으므로 아이돌보미 이용 아동에 관한 사항을 이의 돌봄서비스 이용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개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업무가 요구된다.

그 밖에도 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 구비 후에 신청할 수 있는 데, 2021년 4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어 향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경우는 별도 카드를 구비하지 않고,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별 카드의 가맹점이 달라 실제 사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가맹점을 일원화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도 및 이해도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은 물론, 영유아 부모에서도 저조한 수준이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이들 기관 및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물론,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 영유아 부모의 정보 접근성 제고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기관의 연간 운영을 반영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를 일상화하고, 영유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등), 의료기관, 유관 서비스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안내책자 배부, 임신·육아관련 사이트(보육포털 등)의 알림 공지 등을 추진한다.

나) 어린이집/유치원의 정보 접근성 제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관내의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서비스 연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침에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즉,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연계 기관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사업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4)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의 보완 및 개선

가) 아이돌봄서비스 전·후 아동인계의 안전관리 강화

원아의 등하원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아동인계 관련하여 어린이집 적용기준을 아이돌보미가 이해하고, 아이돌보미의 아동인계에 관한 사항을 보육교직원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시작 전·후의 아동인계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인계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가 정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직원으로부터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인계할 시는 아동의 보육활동과 일과 중 특이사항 등을 교사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부모에 의무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아이돌보미에게 아동을 인계할 시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요구된다. 현행「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등원 시에 부모로부터 담당 보육교직원에게 아동을 인계하고, 하원 시에는 보육교직원이 부모에게 인계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서울지역의 유치원에서는 등하원 인계절차 및 관리 기준으로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자 사전지정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⁵⁾. 이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지정한 대리자로서 사전에 지정되어 상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 일원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고, 관련 보고체계도 다르므로 서비스 연계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에 관한 계획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아동인계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보고 및 처리 과정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서울 지역의 유치원 안전계획에 의하면, 유치원별로 유치원의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해당 계획의 포함 내용에는 그 예시로서 안전체계의 구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사항이 제시되나,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인계에 따른 안전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안전체계 구축 사항에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계에 지역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명시하고, 교육 및 관리 사항에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인계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사항을 보완할 만하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유치원 방과후과정 길라잡이, p. 25.

6)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2021 서울유아교육계획, p. 83.